

2020년도 1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 심사총평

2020년도 1분기 해외교류 공모사업에는 총 7개 언어권에서 1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 3건, 일본어 3건, 중국어 2건, 독일어 2건, 프랑스어 1건, 스페인어 1건, 덴마크어 1건 등이었으며, 행사성격별로는 도서전 1건, 출간기념행사 5건, 문학행사 3건, 학술행사 1건, 기타 3건(한국문학문학지 발간, 한국작가 취재 지원, 콘텐츠 제작) 등이었다.

접수된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본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한국문학의 번역과 관련한 해외 교류 및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들로 구성되었으며, 유튜브의 급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접근방식도 보여주고 있었다. 2020년 1월 21일에 진행한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접수된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 각기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본 사업의 방침인 해외교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의 원칙'에 따라 부적절한 항목의 금액을 제외하였고, 예산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의 지원액을 다소 삭감하였다. 각 사업의 선정 이유를 간단히 밝히면 다음과 같다.

영어권에서 선정된 UC 버클리 한국학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 at UC Berkeley)의 <UC버클리 시조 워크숍>은 미국에 한국 시조문학을 알리고 참가자들의 번역 실습을 통해 잠재독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이듬 시인의 『블러드 시스템즈』 북투어 및 AWP 참가>와 <제이크 레빈(Jake Levine) 번역가의 한국문학 강연 투어>는 한국의 유명 시인과 외국인 번역가가 미국에서 현지 독자들을 만남으로써 한국문학을 밀도 있게 전파하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권에서 선정된 3건의 사업 중 2건은 일본 측에서 기획한 작가 초청 행사이다. <『옆집의 영희씨』 일본 출간기념 정소연 작가행사>와 <『한국이 싫어서』 일본 출간기념 장강명 작가행사>는 최근 일본에 불고 있는 한국문학 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BOOK 진흥회가 주최하는 <『흑산』 김훈 작가 북콘서트 및 문학 답사>는 한국문학을 지속적으로 읽어온 일본의 독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작가 및 독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작품의 무대인 한국을 탐방하게 하는 점에서 독특하다. 최근 경직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어권에서 선정된 2건의 사업은 한국 작가에 관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무한대학출판사(武汉大学出版社)의 <『소지』 출간기념 이창동 작가 취재>는 해당 출판사의 온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만 내용력유한공사(內容力有限公司)의 <2020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주빈국 작가(김영하) 특집 프로그램 제작>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위원들은 문학의 전달 매체가 더 이상 종이출판에만 머물 수 없는 현실에서, 이 두 사업이 K-문학의 세계적인 확산과 한국문학번역원의 향후 사업 진행에도 시사점을 주는 기획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독일어권에서 선정된 <일간신문 TAZ 특별호 LiteraturNachrichten 발간>은 독일의 유명 저널리스트 겸 비평가인 카타리나 보르하르트(Katharina Borchardt)의 집필로 한국문학 특집 기사 4페이지가 실린 특별호를 5만 부 제작해 독일 전역에 배포하는 기획으로, 선정된 사업들 중 가장 광범위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뮌헨 전문가인 김재혁 시인이 참가해 그가 한국어로 쓴 뮌헨 평론을 독일의 독자와 공유하는 <베를린 시 축제 뮌헨 탄생 250주년 문학행사>는 대상 작품이 한국문학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한국의 문인과 독일의 독자가 만나 두 나라의 문학을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권에서 아틀리에 데 까이에(Atelier des Cahiers) 출판사가 주최하는 <2020 파리 국제 도서전 김다은 소설가 초청 행사>, 스페인어권에서 플라네타 출판사(Grupo Planeta)가 주최하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출간기념회>는 한국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공신력 있는 출판사의 행사 경험이 뒷받침되어 있어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덴마크어권에서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아르후스 미술관 한국문학 행사>는 한국문학 소개작업이 초기 단계인 덴마크어권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작가의 현지 방문을 전제하고 있는 행사의 지원은 작가방문 여부 및 일정 확정 후 실비에 한해 지급하며, 방문이 불발될 경우는 지원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 특히 한국문학 및 번역에 관련된 국·내외 문학/학술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사업을 진행하는 나라와 언어권에 따라 한국문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서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다양성을 잘 살리면서도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 내용(특히 경비)과 규모 등에 대한 보다 섬세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분기의 신청자들은 대체로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목적과 실행 계획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실행 계획의 구체성은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며, 지원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앞으로 한국문학과 번역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성과 실행력을 갖춘 사업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나 보다 충분한 예산으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 1. 21.

심사위원장 _____ 김 수 이 (인)